

## 검열과 언론 통제와 글쓰기 문화

— 마해송의 『모래알 고금』을 중심으로\*

장 영 미\*\*

### 요약

본 연구는 마해송 작품을 대상으로 아동문학 검열사를 조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열이 작가의 글쓰기 문화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한 『모래알 고금』은 연재와 중단, 다시 연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언론 억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향신문>에 연재되면서 검열과 폐간, 복간 등을 함께 하면서 검열과 작가의 글쓰기 방식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주지하듯이, 근현대 아동문학은 '검열'과 더불어 시작되고 전개되었다. 방정환은 활동했던 내내 검열 대상이 되어 많은 글이 삭제되거나 압수당하였다. 방정환의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소년조선』, 『학생』 등의 잡지는 모두 검열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과해야만 간행될 수 있었다. 검열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행해졌다. 남과 북의 분단과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공공연하게 작가들을 억압하고 규율하여 창작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하였다. 이런 점에서 검열은 한국 아동문학의 창작과 유통의 기본 조건이었다. 당시 <경향신문>에 연재되다 신문이 폐간되고 다시 복간되면서, 연재 중이었던 『모래알 고금』 2부도 신문사와 운명을 같이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의 글쓰기 방식이 중요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모래알 고금』 2부는 복간된 이후, 서사의 초점이 가족에서 이후 사회로 이동하면서 이전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르게 변한다.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사회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꽃씨와 눈사람」은 마해송의 정치 비판적인 시선이 한층 구체화되어 드러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꽃씨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 성신여대 강사

힘없고 약한 민중, 농사람은 이승만을 비유하면서 당시 사회 현상을 묘사한다. 이 작품을 통해 마해송은 독선적 지배자의 허세에 저항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길 소망하고 현실의 모순된 문제를 비판·풍자하였다. 이런 방식의 창작은 마해송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이면서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국가권력의 검열에 정면으로 맞서는 글쓰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회를 반영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 즉 《경향신문》의 폐간은 마해송의 창작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마해송에게 검열과 언론 단속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은 오히려 사회고발과 비판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주제어: 마해송, 검열, 경향신문, 폐간, 복간, 모래알 고금, 연재, 글쓰기 문화

## 목차

1. 아동문학과 검열
2. 아동문학 검열사와 작가의 대응
3. 이승만 시대와 언론, 저항하는 글쓰기
4. 결론을 대신하며

## 1. 아동문학과 검열

본 연구는 마해송 작품을 중심으로 아동문학 검열사를 조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열이 작가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근현대 문화사, 사상사는 검열과 표현의 자유 간의 길항 혹은 긴장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 가시적 및 비가시적 폭력을 본질로 하는 검열은 사상과 문화통제, 사회통제의 기본적 수단이다. 나아가 자기검열의 일상화를 통해 잠재적인 저항 의의까지를 분쇄하는데 목표를 둔다.<sup>1)</sup> 그런 현실에서 아동문학가 마해송을 떠올릴 수 있다. 마해송은 굴

1) 이봉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내일을 여는 역사』79,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곡진 한국의 근현대사를 두루 겪어온 작가로 아동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마해송의 동화는 풍자와 우의적인 작품이 많은데, 동·식물을 인격화하여 세대를 풍자하고 사회를 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저항성이 강한 작품 경향은 한편으로 어린 독자들에게 계몽적이고 교훈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마해송은 질곡과 파행의 민족사에서 자유와 민족정신, 즉 저항의식을 구현하여 어린 독자를 일깨웠다는 평가가 한층 지배적이다. 그런 평가대로 마해송은 등단한 일제강점기부터 작고 전인 1960년대까지 시대 현실에 조용하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작품세계를 일구어 왔다.

마해송을 저항 작가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토끼와 원숭이』, 『모래알 고금』은 주목할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말~60년대 초,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산된 검열과 관계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토끼와 원숭이』는 1931년 어린이(8월호, 제9권 7호)에 처음 선보였다가 이후 조선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압수되어 삭제를 당한다. 일본의 침략과 전쟁, 외세의 개입 등을 풍자의 형식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완결된 작품이다. 또한 『모래알 고금』은 이승만 정권 시기인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를 배경으로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다. 『모래알 고금』은 연재와 중단, 다시 연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즉, 당시 이승만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향신문》의 폐간과 검열, 그로 인한 작가의 창작의 위축과 글쓰기 방식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sup>2)</sup> 두 작품은 마해송의 작가정신을 이

2020(12), 125면.

2) 1959년, 《경향신문》 폐간은 자유당 정권이 언론을 탄압한 최대사건이면서 자유당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정권과 한 신문이 벌인 대결이면서 당시 정치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폐간처분이 내려진 후, 만 1년 동안 법정투쟁을 통해 복간하게 된다. 『모래알 고금』은 당시 경향신문에 연재하던 아동소설로 신문의 발간, 폐간에 따라 연재, 중단, 다시 연재라는 혼란한 시간을 담은 작품이다. 《경향신문》의

해할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검열과 글쓰기 방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마해송의 『모래알 고금』을 대상으로 국가검열이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즉 검열을 매개로 한 아동문학의 대응과 창작방식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저항문학으로 특징되는 마해송의 문학적 특성을 국가권력과 규율의 관계 속에서 살피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식민지시기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었던 검열 양상을 통해 작가들이 취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마해송은 어떤 방식을 취하였는지를 살필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문학/문화사는 검열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과 1950~60년대, 이후 박정희에서 전두환 정권 기까지 방법과 양상만 달라졌을 뿐 검열이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한 시기였다.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검열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통해서 폐쇄적이고 왜곡된 현대사의 단면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열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일제가 주로 검열한 대목은 계급투쟁, 내선일체의 부정, 조선의 민족의식 고취 등 정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대목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은유와 상징 등의 이중어법, 금지어 바꿔 쓰기 등 다양한 우회적 방법을 동원하였다.<sup>3)</sup> 작가들은 또한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던 글을 단행본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내용을 삭제하거나 순화해서 수록하기도 하였다. 검열의 통제하에서 작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냉전, 분단체제, 권위주의적 정권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헌법상

폐간은 한편으로 극단적인 언론탄압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체제의 불응하여 발생한 보복성 검열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본 논문에서 주목하게 된다.

3) 한만수, 『허용된 불온』, 소명출판, 2015, 301면.

명문화되어 있는 국민기본권의 제한, 위축뿐 아니라 문화, 일상, 의식의 영역 전반이 국가권력의 관리 체계에 갇히게 되었다.<sup>4)</sup> 이렇듯 우리의 문학/문화사는 시기별로 검열제도를 감당해 왔고, 그에 따라 작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창작을 수행해 왔다. 마해송은 우회의 방법을 주로 구사하였다. 동식물을 의인화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고발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항의식을 표현하였다. 그의 저항의식은 고발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주목할 것은 그것이 단순히 고발이 아니라 아동문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동문학의 검열 관련 연구는 일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시대적 환경에서 기인한 타인지, 다른 시기보다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먼저 류덕제(2010), 최미선(2012), 이정석(2019), 문한별(2013, 2019)<sup>5)</sup>을 주목할 수 있다. 『별나라』, 『신소년』, 『어린이』와 『학생』, 『불은소년소녀독물역문(不穩少年小女讀物譯文)』과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 등을 대상으로 일제의 탄압 양상과 검열의 성격, 방향을 중심으로 검열 문제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미답지였던 아동문학 검열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특정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아동문학과 아동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탄압 양상을 살피는 정도에 그쳐서 식민지시기 아동문학의 특성을 새롭게 환기하지는 못하였다. 해방 후의 검열 연구는 박금숙의 논문을 주목할 수 있다. 박금숙은 2편의 논문(2013,

4) 이봉범, 앞의 글, 125면.

5) 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46, 국어교육학회, 2010 ; 최미선, 「『신소년』의 서사 특성과 작가의 경향 분석」, 『한국아동문학연구』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 이정석, 「일제강점기 『출판법』 등에 의한 아동문학 탄압 그리고 항거」, 『한국아동문학연구』3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9 ;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 문한별, 「일제강점기 초기 교과서 검열을 통해서 본 사상통제의 양상」,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44, 2019 등.

2015)<sup>6)</sup>을 통해 강소천의 동요/동시, 그리고 동화의 검열과 개작 양상을 논하였다. 강소천이 해방 이전에 창작했던 것을 월남 이후 체제 이념 혹은 그에 부합하는 방향 등으로 개작한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사례인데, 자기검열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다. 한국전쟁 이후 유신체제 기간 동안 한국 아동문학을 억압한 것은 반공주의의 검열이었다. 당시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검열이든 아니면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든 검열 문제는 전후 작가들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었다. 선안나는 아동문학사에서 금기시되었던 반공과 검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하였다.<sup>7)</sup>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아동문학에 대한 검열 연구는 미답지에 가깝다. 검열로 인해 나타난 현상 분석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검열에 대응하는 작가의 창작 방식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해송을 중심으로 검열에 대한 작가의 대응 방식과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sup>8)</sup> 곧, 본 연구는 마해송 문학의 특성을 검열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마해송 문학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6) 박금숙·홍창수, 「강소천 동요 및 동시의 개작 양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2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3 ;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5.

7) 선안나의 「1950년대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산문문학을 중심으로」(『창비어린이』4, 창작과비평사, 2006), 「1950년대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아동잡지를 중심으로」(『동악어문학』46, 동악어문학회, 2006)

8) 지금까지 마해송에 대한 연구는 작가론/작품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들 논문은 특정 시대별, 주제별 등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고, 작가의 문학적 특성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정현의 「마해송 동화에 나타난 저항의식 연구」(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6), 박상재의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단국대 석사논문, 1998), 신수진, 「마해송 동화의 현실 인식 연구」(단국대 석사논문, 1997), 이영미의 「마해송 동화 연구-공간분석 중심으로」(연세대 교대원 석사, 1992), 이정숙, 「마해송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중심으로」(숙명여대 석사논문, 2001), 장소영, 「마해송 동화연구-풍자성을 중심으로」(동덕여대 석사논문, 1997) 등.

## 2. 아동문학 검열사와 작가의 대응

근현대 아동문학은 ‘검열’과 더불어 시작되고 전개되어 왔다. 방정환은 활동했던 내내 검열 대상이 되어 많은 글이 삭제되거나 압수당하였다. 실제로 방정환의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소년조선』, 『학생』 등의 잡지는 모두 검열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과해야만 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검열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행해졌다. 남과 북의 분단과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공공연하게 작가들을 억압하고 규율하여 창작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하였다. 이런 점에서 검열은 한국 아동문학의 창작과 유통의 기본 조건이었다.

방정환에 대한 추도사에서 이태준이 “이젠 그대에게 검열난(檢閱難)의 고통도 없을 것이로다”<sup>9)</sup>라고 하면서 애도했던 것은 검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정환은 아동문학/문화운동가로 활동했던 내내 검열의 통제를 받았고 특히 1926년 일제의 검열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한층 더 가혹하게 검열에 시달렸다.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제2호(1928.10)부터 거의 매월 방정환의 책과 글들이 검열로 삭제 및 압수된 기록이 나타난다. 1호에는 검열 대상자로 방정환이 언급되어 있고, 2호에서는 『어린이』가 “관북 수해 정황, 일본 면적과 인구에 관련된 정보, 독일과의 전투에서 자국 군대를 구출한 용감한 벨기에 소년기수의 애국 미담” 등의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기사 개요가 실려 있다. 이처럼, 아동문학을 포함한 문학과 언론, 출판 분야에서 일제강점기 내내 검열과 탄압으로 통제가 일상화되었다. 그 검열에서 아동문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마해송에 의하면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고 아동문화운동을 펼치는데 일제의 검열과 탄압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식민지 작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포위된 형국이었지만, 그

9) 이태준, 「평안할 지어다」, 『별건곤』, 1931.9.

압박 속에서 나름의 대응을 펼친다. 작가들은 검열을 의식해서 갖가지 표현을 바꾸기도 했고, 특정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플롯을 변형시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검열관이 좋아할 문구를 의도적으로 삽입 하면서 검열을 우회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가령, 윤석중과 강소천은 비유적 수법으로, 이주홍과 마해송은 풍자와 해학으로 검열에 대응하였다. 『별나라』와 『신소년』처럼 일제에 저항하면서 비판적 경향을 견지했던 잡지가 1920년대 말부터 과거 역사물로 방향을 돌리면서 검열에 맞선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방정환을 비롯한 문학인들은 과거 역사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현실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제 삼았다. 1920년대 이후 역사동화는 아동잡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소재였다. 우리 역사의 위인을 소재로 역사 동화를 만들어 미래 세대인 어린 청소년들에게 일제 지배에 대한 저항, 민족의식 고취 등을 위한 읽을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당시 역사동화 작가들은 당시의 식자층으로서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훈적·민족적 측면의 동화를 저술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고주몽 이야기, 이율곡 선생 이야기, 이충무공 이야기 홍길동 이야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동화는 조선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삭제를 당하기 일쑤였다. 일본과의 관계에 얽힌 임진왜란, 즉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sup>10)</sup>과 이충무공의 한산대첩 등은 예외없이 삭제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필자는 일제강점기 역사동화의 진술 형태나 사건 전개, 일화 구성 등이 검열에 대응하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작가들은 활동 기간 내내 검열의 자장 속에서 고뇌하며 작가만의 대응 방식을 모색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후부터 1950~60년대에는 검열이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해방 후의 시기는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위와 친체제적인 것들을 부정하

10) 『어린이』(29.2월호), 「이달의 역사 이율곡 선생」.



거나 변형하려는 욕망이 강렬했던 시기로, 작가 스스로를 검열하는, 즉 자기검열 들 수 있다. 이원수는 1941년 「니 닳는 노래」<sup>11)</sup>를 해방된 1946년에 동일한 제목의 「이 닳는 노래」<sup>12)</sup>로 재발표한다. 「니 닳는 노래」는 표면적으로는 구강 보건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지만, 사실은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전시동원체제 아래 성전(聖戰)에 나가 건강한 황국신민으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방 후 재발표되면서 시행(詩行)을 줄이고, 이를 잘 닳는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작된다. 즉, 해방 전의 검열이 주로 텍스트에 대한 정치적 검열이었다면, 해방 후 검열은 작가 스스로에 대한 통제인 심리적 내면 검열의 양상을 띤다. 일제강점기 발표한 텍스트가 해방 후 검열의 대상이 되기 전에, 작가 자신이 내외적으로 사상검열을 먼저 하는 것이다. 국가검열과 자기검열 사이에서 자발성과 비자발성, 외적 검열과 내적의 검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외적 검열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 해방 이후 검열의 사회·문화사적 환경이다.

아울러 해방 이후 검열은 무엇보다 월남 작가나 월북 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미군정체제 아래에서 작가들은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좌익 문인을 축출하고 1949년 6월에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여 전향 문인을 관리하면서 본격화된다. 1949년 9월에는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월북 시인의 시를 일괄 삭제한다. 아동문학의 경우도 1930년대 아동문학운동 주역인 현덕을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월남작가인 김영일에 대해서는 친일동시를 덮어두고 자유 동시론의 선구자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해방 직후 진보적인 경향의 글을 발표했던 작가들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가령, 강

11) 《매일신보》, 1941.10.21.

12) 『주간소학생』7호, 1946.3.25.

소천은 해방 후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아동문학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작가이다. 그는 북조선문학동맹의 기관지로 발행된 『아동문학』에도 창간호부터 줄곧 작품을 발표하였다. 한국동란 중에 월남한 후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남한 아동문학을 이끌었던 그의 이력에 비추어 본다면, 해방기 북한체제에서 남긴 그의 발자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소천은 월남하면서 가지고 온 동요/동시, 동화를 개작하여 발표한다. 이 중에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확인된 개작만 도 약 36편<sup>13)</sup>에 달하고, 몇 편의 작품을 여러 번 개작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특히 광복 전과 광복 후, 6·25전쟁 전에 창작한 초기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소천은 자기 작품에 대한 검열을 철저하게 했던 작가로 간주되며, 여러 차례의 개작은 작품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사상검열과 연결지어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했던 작가들이 해방 이후 문단의 주역이 되면서 자신의 작품을 새롭게 정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일적 요소나 식민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검열에 대응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 해방기 때 좌익이나 중립 계열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이승만 정권 치하로 들어서면서는 그런 경향을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검열·조정할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0~60년대 검열은 남과 북이 고착되면서 남한에서는 1958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언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로 인해 반공 이념은 승공(勝共) 위주의 적극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한층 가혹하게 사회를 통제한다. 혁명공약 1항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하여 반공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런 현실에서 문교부와 문화공보부 등에서는 반공 이론서와 교과서,

13) 박금숙·홍창수, 「강소천 동요 및 동시의 개작 양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2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3, 40~41면.

아동문학 작품집 등을 간행하여 반공주의를 계몽·선전한다. 이런 현실에서 작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현실 권력에 참여하여 보수 우익문단을 형성한다. 반공이란 자유와 민주주의를 뜻하며, 반공문학은 참다운 문학 또는 인간성 옹호의 문학으로 규정되며, 아동문학은 그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체제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대응으로 저항정신을 담은 작품이 등장하는데, 1950년대 중후반 《경향신문》에 연재한 마해송의 『모래알 고금』이 대표적이다.

### 3. 이승만 시대와 언론, 저항하는 글쓰기

이승만은 1948년 5·10 단독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불법을 통해 대통령에 재선된다. 그런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한다.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지 못한 정권이었기에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언론을 단속하고 통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적극 활용한다. 북한 위협을 빙자하여 공산주의자를 공동체 내부에서 추방하고 그들에게 공격자, 적대자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며 억압하였다. 한 집단의 정체성은 다른 집단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승만 정권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남한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분단 정권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범한 이승만은 내·외의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면서 반공 정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sup>14)</sup> 사실, 초기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라는 금기 외에는 언론정책에 대한 정교한 틀을 갖고 있지

14)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04(12), 14면.

않았다. 일시적인 검열은 있었지만 검열을 제도화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 기간에도 검열이 거의 없었던 것을 상기하면 언론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셈이다.<sup>15)</sup> 하지만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의 반공산주의 정책이 노골화되고, 갈수록 이승만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 국가 또는 민족국가 형성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국가가 규제한 것처럼 언론 역시 길들이기 시작한다.

《경향신문》의 폐간(1958)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권력 비리 등을 비판하는 언론과 그것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60년 4·19혁명은 행동 주체가 학생이었으나 ‘혁명적 감정’을 일깨운 원동력은 언론이었다.<sup>16)</sup> 이승만 정권의 언론 단속은 대한민국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22일에 7개 항 발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좌경 언론을 뿌리뽑자는 명분 아래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허위 사실을 날조·선동하는 기사’ 등을 내세워 국가와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sup>17)</sup>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이승만 정권과 관련된 부정부패와 선거부정을 과감하게 비판하였고, 정권 역시 언론을 억압하였다. 즉,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의 대 정부 불만이 늘어가고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권력 유지를 위하여 더욱 강압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다스리려 하였다. 특히 1958년 이승만 정권은 다가오는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야당 탄압을 위한 내부 위협의 외부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안법의 강화, 조봉암의 제거, 《경향신문》의 폐간이다. 가톨릭이 운영 주체였던 《경향신문》은 민주당 신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 공세를 취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두 달여에 걸쳐 《경향신문》의 오보들을 잡

15) 정진석, 「4·19혁명과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115, 관훈클럽, 2010(6), 190면.

16) 정진석, 위의 글, 182면.

17) 손석춘, 「언론, 정권자본과 유착된 또 하나의 권력」, 『내일을 여는 역사』31,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08(3), 57-58면.

아내어 명분을 축적한 후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을 폐간시킨다.<sup>18)</sup> 《경향신문》은 법정투쟁을 통해 만 1년 후에 복간한다. 결국, 《경향신문》의 폐간은 자유당 정권이 언론을 탄압한 최대사건이면서 자유당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다.

당시 《경향신문》에 연재 중이었던 『모래알 고금』 2부도 신문사 폐간으로 인해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60년 4월 27일 속간된 뒤 다시 연재되었다. 신문사의 정간, 복간 등으로 『모래알 고금』은 연재와 중단, 다시 연재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3부작으로 완결된다. 『모래알 고금』 연작의 발표 시기와 회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 연도	연재 회차
『모래알 고금』 1부	1957년 9월 10일~1958년 1월 22일	1회~134회
『모래알 고금』 2부	1959년 1월 7일~4월 30일	135회~247회
	《경향신문》 정간 처분으로 중단	×
	1960년 4월 28일~6월 17일	248회~298회
『모래알 고금』 3부	1960년 6월 18일~1961년 2월 1일	299회~524회

마해송은 혼돈의 상황인 분단 시대로 들어오면서 장편동화 1958년 『모래알 고금』을 발표하였다. 『모래알 고금』 3부작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적 환경과 물질적/정신적 궁핍한 소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모래알 ‘고금’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작품들이 연작으로서의 긴밀성이나 유기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향신문》의 정간과 복간 과정에 따라 작품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재 중단되기 전과 다시 연재하면서 이전 내용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18) 정진석, 「경향신문 폐간 사건」, 『한국 현대 언론사론』, 전예원, 1985, 341면.

『모래알 고금』 1부는 모래알의 이동 경로를 따라 전개된다. 한 알의 모래알 ‘고금’이 일인칭 관찰자가 되어 개구쟁이 임이식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임이식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소꿉놀이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한 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난한 소녀 부모의 비극적인 삶과 구두담이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모래알 고금』 1부는 어린이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 있는 것을 돌아보고 있다. 이처럼 『모래알 고금』 1부는 세상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대조해 가면서 어린이 스스로 성찰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부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2부의 초반도 내용은 유사하다.

『모래알 고금』 2부 토끼와 돼지처럼 첫째는 ‘토끼’, 둘째는 ‘돼지’라 부르며 아버지로 차별받는 둘째 을성이를 중심으로 한다. 2부는 《경향신문》이 폐간당하기 전에는 형과 비교당하는 둘째의 설움과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경향신문》 정간과 복간 이후부터는 혼란한 사회 현실과 독재 정권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복간 이후에는 을성이가 도둑 소굴에 들어가서 겪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을성이가 붙잡혀 간 소굴은 어린이를 찢어다가 소매치기도 시키고 여자를 찢어다가 날치기도 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치 깡패가 사는 곳이다. 정치 깡패들의 행동은 이승만 정권의 힘을 믿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생생하게 그려진다.

참 무서운 깡패 두목의 집이었습니다. (……) 나라의 큰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편에 반대하는 모임이나 빼대 있는 사람들을 깡패를 시켜서 무찌르게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시 뽑힐 수가 없을 만큼 못된 짓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물러나고 싶지는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 연연해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깡패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맥을 못 추게 때려 눕혀! 투표하러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두고!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되니 세도가 등등해졌습니다.<sup>19)</sup>

위의 인용문은 당시 이승만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대목이다. 이승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치르고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무력을 행사하였다. 정치 깡패들은 정권의 힘을 믿고 경찰 서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렇듯 무서운 소굴에 붙잡혀 갔던 을성이는 간신히 빠져나와 아버지를 만난다. 을성 아버지는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는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사회에 대한 화풀이었다고 한다. 을성 아버지는 이 사회는 “깡패만이 활개 치는 세상”인데 그 까닭은 “체일 높은 데 앉은 늙은이가 그게 깡패 대장”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썰룩이 영감’이라 치칭하며 정권의 부패를 비판한다. 이처럼 『모래알 고금』 2부는 복간되면서 사회 현실과 독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는 마해송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면서 《경향신문》의 폐간이라는 국가권력의 검열에 정면으로 맞서는 글쓰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모래알 고금』 2부 연재 중단과 복간이라는 당대 사회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복간된 이후의 2부 내용은 복간 정의 서사의 초점이 가족에서 이후 사회로 이동하면서 이전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사회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마해송의 『모래알 고금』 2부와 3부는 전후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적나라한 세계를 재현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어린이들에게 버거운 삶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가 또한 세계를 사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외면하지 않고 사실

19) 마해송, 『모래알 고금』(1·2), 문학과지성사, 2014, 435면.

적으로 서술하여 세계를 인식케 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래알 고금』 3부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연재한 것으로 사회 비판적 논조가 강하고 하위주체들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이는 4·19의 영향을 직접 받고 쓴 작품이기 때문에 이전의 2부와는 차별화된다. 즉, 『모래알 고금』 2부에서 울성이 아버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였다면, 『모래알 고금』 3부는 하위주체들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부 비둘기가 돌아오면은 4·19의 영향을 직접 받고 쓴 작품으로 사회 비판적 논조가 한층 강화된 작품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난 우리 역사의 굴곡과 수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모든 사회 현상들이 부패하고 타락된 정치 현상으로 지적되고, 작가의 시선은 당대 정치 사회의 부패상을 규탄하는 데 모아진다. 이처럼 마해송은 독재 정권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자유, 민주, 정의를 외치고 있다.

마해송의 후기 작품은 이승만 정권과 함께 한다. 마해송의 창작 활동 시기는 초기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 그리고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해송은 어느 시기도 저항의식을 담고 사회를 비판하는 특징을 지닌 작가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알레고리(Allegory) 형식으로 민족의 현실과 역사를 풍자해온 것에 비하면, 전후의 아동소설은 그 형식이 다르다. 혼란한 사회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어린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그 원인을 부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한다. 이러한 현실 비판 정신을 거침없이 표현한 작가는 당시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사회를 반영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탄압, 즉 《경향신문》의 폐간은 마해송에게 창작 방식을 달리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마해송에게 검열과 언론 단속은 오히려 아동들에게 사회고발과 비판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였다. 4·19 혁명을 예견한 작품 「꽃씨와 눈사람」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꽃씨와 눈사람」은 1960년 1월 1일자 《한국일보》에 발표한 단편이



다. 꽃씨는 힘없고 약한 민중, 눈사람은 이승만을 비유하면서 당시 사회 현상을 묘사한다. 눈사람은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호령하며 군림한다는 내용이다. 마해송은 이 작품을 통해 독선적 지배자의 허세에 저항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길 소망하고 현실의 모순된 문제를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강소천과 대담을 나누면서, 근래 창작한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꽃씨와 눈사람」을<sup>20)</sup> 꼽았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해송은 당시 부패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누구보다 기다렸고 그것을 미리 감지한 작가적 안목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마해송이 이승만을 타락한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문제 삼은 것이다. 마해송이 이승만을 악이라 칭한 데서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

“이승만이라는 노인의 이름이 가끔 머리에 떠오른다. 그의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진다. 장기집권을 하면서 빛은 것이 악이라고 하면서 물러나야 할 때를 가리지 못한 것이 그의 악의 정점이라고 한다.”<sup>21)</sup>

아울러 “한사람이 오랫동안 집권하면 본의 아니더라도 독재에 흐르기 쉽다.”<sup>22)</sup>는 내용에서도 마해송이 인간의 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마해송의 발언과 인식은 작가로서의 사회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마해송의 문학적 특징은 저항의식이 단연 우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 작가의 창작 방식과 사상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동들을 한 인격체로서 인식하

20) 마해송(마해송 전집10), 「나와 문학 생활이라는 대담」, 문학과지성사, 2014, 704-705면.

21) 마해송, 위의 책, 741-742면.

22) 마해송, 위의 책, 465면.

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마해송은 아이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아이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sup>23)</sup>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한 작가였다. 그는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점은 아동문학에서 아동이 주체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그동안 아동을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동심천사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작가란 무엇인가, 아동문학 작가가 아동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마해송은 이런 작가로서의 책무에 대해 고민한 작가였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모래알 고금』 연작 외에도 시대 환경에 따라 변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의적인 수법으로 세계를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쓰기 방식은 국가와 체제, 사회 검열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을 대신하며

동화 담론은 역사적 문명화 과정을 구성하는 역동적 요소라는 점과 각각의 상징 작용이 공적 영역에서 사회화에 개입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동화 한편을 출판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공적 발언이자 작가 자신과 독자인 아이들과 문명화 과정 전체를 중재하는 행위이다.<sup>24)</sup> 검열체제를 지배/저항의 이분법으로만 재단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열의 본질과 작동 체계 그리고 검열이 끼친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지속성을 제대로 포착해야만이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검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기제, 특히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지배 권력과 문화 주체가 중흥으로 상

---

23) 배경내, 「어린이 그리고 인권」, 『문화과학』21, 문화과학사, 2000(3), 103면.

24) 잭 자이프스, 『동화의 정체』, 문학동네, 2008, 28면.

호 교류하는 장이라는데 있다. 그런 사실은 역사동화의 등장에서 알 수 있다. 지배와 저항의 대립이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동시에 공모, 타협, 은폐, 우회, 왜곡, 방관 등이 복잡다단하게 착종되면서<sup>25)</sup> 과생된 것이 역사동화이다. 1920년대 말 작가들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동화에 기울인 관심은 글쓰기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일제강점기의 작가들은 활동 내내 검열의 자장에서 고뇌하며 작가만의 대응방식을 모색하였다.

본고는 마해송 작품을 대상으로 아동문학 검열사를 조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열이 작가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58년 《경향신문》의 폐간이 작가의 글쓰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싹트고 자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대 정신을 반영하며, 그에 맞는 형식을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마해송은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작품을 창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정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당하고 폐간과 복간되면서, 거기다 작품을 연재한 마해송의 글쓰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물론 이는 주제 의식 면에서 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이전에 저항정신을 담은 작품을 알레고리와 우의적 기법을 통해 창작한 것을 상기하자면, 『모래알 고금』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모래알 고금』에서 마해송은 이승만 대통령을 ‘썰룩이 영감’이라 지칭하며 정권의 부패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신문의 복간과 함께 『모래알 고금』 2부는 사회 현실과 독재 정권에 한층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런 방식의 창작은 마해송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이면서 국가권력의 검열에 정면으로 맞서는 글쓰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굴곡진 우리의 역사에서 많은 작가들이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

25) 이봉범, 앞의 글, 126면.

라 검열을 당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통해 창작을 하였다. 한 연구자가 언급했듯이 그 방법의 하나는 두리몽실한 글쓰기 방식이었다. 419 이후 그나마 이원수가 가장 활발한 비평 활동을 하였지만, 누구의 어떤 글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상황을 지적하는 것인지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단 내부의 이해 관계자가 아니면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 또한 반공주의로 인한 내면 검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1950년대뿐만 아니라 검열이 실시된 시기 언제나 존재하였다. 그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마해송의 『모래알 고금』은 검열에 따른 문학적 대응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마해송, 『모래알 고금』, 우리교육, 1996.  
 \_\_\_\_\_, 『모래알 고금』Ⅰ·2, 문학과지성사, 2014.  
 \_\_\_\_\_, 『모래알 고금』Ⅲ, 문학과지성사, 2014.  
 \_\_\_\_\_, 『마해송 전집』Ⅳ-10권, 문학과지성사, 2013-2015.  
 『별건곤』, 『어린이』, 『주간소학생』, 《경향신문》, 《매일신보》

2. 그 외 단행본 및 논문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회, 2004(12).  
 김정현, 「마해송 동화에 나타난 저항의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6.  
 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46, 국어교육학회, 2010.  
 류정월, 「근대전래동화의 두 가지 문학적 지향 - 방정환과 주요섭의 전래동화 개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40, 한국고전연구회, 2018.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일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비평』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_\_\_\_\_, 「일제강점기 초기 교과서 검열을 통해서 본 사상통제의 양상」,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44, 2019.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5.  
 박금숙 · 홍창수, 「강소천 동요 및 동시의 개작 양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2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3.  
 박상재,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8.  
 배경내, 「어린이 그리고 인권」, 『문화과학』21, 문화과학사, 2000(3).  
 선안나, 「1950년대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산문문학을 중심으로」, 『창비어린이』4, 창작과비평사, 2006.  
 \_\_\_\_\_, 「1950년대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아동잡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46, 동악어문학회, 2006.  
 손석춘, 「언론, 정권자본과 유착된 또 하나의 권력」, 『내일을 여는 역사』31,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08(3).  
 신수진, 「마해송 동화의 현실 인식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7.

- 이봉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내일을 여는 역사』79,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20(12).
- 이영미, 「마해송 동화 연구-공간분석 중심으로」, 연세대 교대원 석사논문, 1992.
- 이정석, 「일제강점기 「출판법」 등에 의한 아동문학 탄압 그리고 항거」, 『한국아동문학연구』3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9.
- 이정숙, 「마해송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1.
- 엄희경, 「마해송 작품연보」, 『해방 전후, 우리문학의 길찾기』, 민음사, 2005.
-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 『아동문학평론』, 한국아동문학연구원, 2005.
- 장소영, 「마해송 동화연구-풍자성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논문, 1997.
- 장수경, 「1960년대 동화 소년소설에 나타난 일탈과 현실인식」, 『비평문학』48, 비평문학학회, 2014.
- 장영미, 「전후 아동소설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2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 전명원,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개작양상과 의미」, 경기대 문화예술대 석사논문, 2009.
- 정진석, 『한국 현대 언론사론』, 전예원, 1985.
- \_\_\_\_\_, 「419혁명과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115, 관훈클럽, 2010(6).
- 최미선, 「『신소년』의 서사 특성과 작가의 경향 분석」, 『한국아동문학연구』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 한만수, 「1930년대 검열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제」,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_\_\_\_\_, 『허용된 불온』, 소명출판, 2015.
- 책 자이프스, 『동화의 정체』, 문학동네, 2008.

<Abstract>

## Censorship, Media Control and Writing Culture Correlation Study

– Based on Mahaesong's 『Sand Eggs Ancient Gold』

Jang, Yeongmi

This study looked at children's literature censors for Mahae Song works, and based on this, it identified the impact of censorship on the writer's writing culture. The 『Sand Egg Gogum』 which was noted in this book, is famous for its many twists and turns, including serialization, suspension, and re-release. It is a work that shows the influence of censorship and the writer's writing culture by publishing a series of articles on the 《Kyunghyang Newspaper》, which showed the oppression of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he second part of the 『Sand Egg Gogum』 was reinstated, and the focus of the narrative shifted from the family to the society afterward,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contents. In other words, it criticizes dictatorships and actively expresses its desire for social justice and freedom. This is the way Mahae Song views the world and the way of writing in front of the censorship of the state power of the 《Kyunghyang Newspaper》 closed. Therefore, the suppression of the media, which aims to reflect society and show the world as it is, or the closure of the 《Kyunghyang Newspaper》, played a major role in changing the creative style for Mahae Song. For Mahae Song, the phenomenon caused by censorship and media crackdowns has created an

opportunity to show social accusations and criticism more starkly. Therefore, censorship influences a writer's writing culture and furthermore, literary characteristics change as well.

Key words: Mahae Song, censorship, Kyunghyang Newspaper, closing, reinstatement, grain of sand, serialization, writing culture

투 고 일: 2021년 5월 30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